

절대로 덮어 버릴 수 없는 섬나라의 과거 죄악

1905년 11월 17일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을사5조약》을 강요적으로 날조한 날이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일본이 지난날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강요한 온갖 불행과 고통이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불법무효한 협정문서였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강요한 불법무효한 협정문서라는 것은 조선봉건국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가들 사이의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국가대표의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필요로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근대시기부터 국제조약체결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주권과 관련된 조약들을 조선봉건국가의 조약체결절차마저

강압적으로 뒤집어엎고 전권위임장과 비준이 없이 날조하는 강도행위를 일삼았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 국권을 지켜보려는 고종황제의 완강한 태도와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 조선을 둘러싼 령동들의 격화되는 모순에 위기를 느낀 일제는 《을사5조약》 날조를 위해 총과 대포에 의거한 군사적강권을 발동하는 방법에 매달렸다. 계획부터 가 강제성을 전제로 하였던 것만큼 그 날조과정 또한 불법무효한 위협과 공갈로 일관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고종황제를 전후한 시기의 일본군사료들을 모아 편찬한 《록군정사》에는 당시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의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하세가와 는 《을사5조약》 체결당시 일본군 기병연대와 포병연대까지 함양성내에 투입하여 완전장악했다》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제공로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고종의 반대로 황제

의 비준과 국새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 외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어 제멋대로 찍는 비법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비준, 국새날인도 없이 날조되었다. 즉 합법적조약으로서의 조보적형식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그 때에 스토리가 쓴 책의 내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원인은 영국정부가 일본의 판례를 고려하여 《인디아와 영국령토에 대한 배포한다》는 조건부책의 발행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종황제의 밀서내용은 《을사5조약》이 일제에 의해 완전히 날조된것이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은 철저히 비법적이고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이런 날조조약인 《을사5조약》에 기초하여 《한일합방》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합행위를 감행하고 국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 것이었다. 일제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죽음의 전열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헤이룽강을 넘는 불행과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 일제가 랍치, 유괴, 강제연행하여 전쟁판과 공사장

수시로 발동되는 《비상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긴급조치》에 정치방학, 정치휴교령, 방첩철간과 방범주간, 불온분자색출 등에 의해 당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속에 살아가다. 친구를 만나면 점성으로, 술을 나누면 모의한것으로, 악수를 하면 비밀약속으로 간주되어 재판도 없이 즉결심판되었으며 심지어 《배고파 못살았다》는 말 한마디에 《불온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중양정부》의 지하고 문살에 끌려가 매달아야 했고 《입산금지령》, 《통행금지령》때문에 벌초하러 산에 갈수도, 대낮에 이웃에 갈수도 없는가 하면 집에 도적이 들었다고 신고하여도 《류인비어류포죄》에 걸려 옥고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에 결명 코걸이, 귀에 걸린 귀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새가 어떻게 우느냐 하는 물음에 《책》 한 닢 해 도 죽이고 《책》 한 닢 해 도 잡아죽인 봉건시대의 폭군에 《유신》독재자를 비친 것도 그때부터이다. 《정권》안보를 위한 몸서리치는 폭압정치는 《인민혁명당사건》과 같은 《간첩당사건》들을 무수히 조작하는 것으로 이어져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탄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유신》독재자의 집권기간 해마다 70만~80만명, 연 140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체포투옥되거나 학살당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역도도 이렇게 악명을 떨친 《유신》독재자를 따라배워 그자와 나란히 검찰독재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유신》독재자를 배우겠다는 것은 또한 사대매국, 노예적 굴종자세를 배우겠다는 것이다. 《유신》독재자는 외세에게



역겨운 정치광대극

최근 윤석열역도가 《민생회복》과 《소득》을 운운하며 자기에게 불은 오만과 독선, 독재와 불통, 악정의 딱지를 때려보려고 어리석게 돌아대고 있다. 얼마전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수십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벌린 《비상경제민생회의》도 그러한 실례이다. 이날 《부산에서 온 택시기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택시운전사들의 생활처지에 대해 운운한자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작자는 택시운전사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당직자였다고 한다. 이자는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국민의 힘》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했다고 한다. 도란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는데 나설것을 요구하는 민생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렁이도 모두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도가 민생의 저주와 규탄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막다른 궁지에 몰렸으면 자기의 하수인을 택시운전사의 감투를 씌워 여론에 내세워 민생을 회유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는가. 역도가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보여준 서툰 기만극은 민생을 위하

는 낫에는 방언의 틈새마다 숨어있다가 어두워지면 기어나와 사람이나 개, 고양이 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역한 냄새를 풍기는데다 한 번에 빨아먹는 피의 양은 제 몸결량의 2배나 된다고 그야말로 나쁜 해충인데다 먹성도 어간 아니구만. 더우기 여러가지 병균을 묻혀가지고 병을 퍼뜨리는 은 낫에는 방언의 틈새마다 숨어있다가 어두워지면 기어나와 사람이나 개, 고양이 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역한 냄새를 풍기는데다 한 번에 빨아먹는 피의 양은 제 몸결량의 2배나 된다고 그야말로 나쁜 해충인데다 먹성도 어간 아니구만. 더우기 여러가지 병균을 묻혀가지고 병을 퍼뜨리는

《룡산왕빈대》가 초불에 탄다

원시적인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 빈대란 놈을 보니 윤석열역적패당이 절로 떠오르누만요. 우습한 뒤굴방에 모여들어서는 권력 나눠먹기, 돈 읊어내기, 누구를 모함하기 등의 속덕공문을 벌리고 권력의 요진통에 들어박혀있는 것은 악정을 다 저지르며 사람들의 고통만 짚는 역적패당.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검찰공화국》,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권》, 《안방정치》라구요. 빈대는 밤에만 기어나와 나쁜짓을 한다는데 역적패당은 낮에도 밤에도 가림없이 온데를 쫓다니며 사람들에게 불평을 주고 해만 끼치니 참 야단이 아닙니까. 알고있을겁니다. 장마피해복구현장에 가서는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되게》라고 떠벌인 폐물아들, 산사태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나도 골

인 사람들앞에서 《할때면 하라》고 떠돌아다니는 악한 이 윤석열역도가 아닙니까. 여우와 송아지, 키머드나 뱀파워가 인간으로 변신하여 악명을 저질렀다는 옛말도 있던데 바로 빈대가 변신한 괴물이 윤석열역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술한 새끼빈대들을 거느린 왕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초가삼간 다 타고 빈대 죽는것을 보니 시원하다》라는 속담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빈대 빈대를 박멸하는데는 불이상 좋은 비법이 없구만요. 그래서인지 지금 《룡산왕빈대》가 살판치는 괴뢰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분노의 초불이 세차게 타고오고 인터넷들에는 《룡산왕빈대부터 잡아라!》, 《왕빈대를 잡아야 새끼빈대들이 더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글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룡산왕빈대》가 언제 라 죽을지 몰라 안절부절 할수밖에요. 역적패당이 민생의 증오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빈대잡이 소동을 외란세력 벌려놓았지만 각계층은 이에 침을 뱉으며 《룡산왕빈대》와 그 《새끼빈대》들을 박멸하기 위해 모두가 초불을 들고 떨쳐나섰습니다. 초불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룡산주변에는 화방이 충전합니다. 《왕빈대》가 도사리고있는 《룡와대》는 점점 라들어갑니다. 김정혁

망해가는 집안의 싸움질

최근 다음해에 있게 되는 괴뢰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제를 둘러싼 《국민의 힘》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혁신위원회》가 윤석열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 어떤 후보들을 내세우느냐 하는 문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다. 당이 직면한 현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지도부와 중진의 원들에게 야당세력이 우세한 지역들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거에 나설것을 요구해나선 것이다. 이에 당중진의원들은 《혁신위원회》가 《회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그 요구대로 하면 2022년 《대통령》선거때부터 고생해 온 《공신》들이 매장되고 말겠다고 반발해나선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윤석열역도의 부추김을 받고 정치문의원들인 《대통령실》것들이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겠다고 떠들거리고 한다. 자기 심복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국회》는 물론 《국민의 힘》까지 친윤석열일색으로 만들어 《정권》유지의 든든한 《보루》를 닦아 보자는것이 윤석열역도의 속심이라는것이 세인의 평이다. 이에 편승하여 《혁신위원회》것들은 정치초학도인 《대통령실》것들을 당의 중진의원들의 터밭에 《국회》의원후보로 내보내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본시기자 박진홍

괴뢰지역에서 치솟는 물가도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찬소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언론들은 《민생현장은 《미친 물가》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다. 《고급리와 고물가장기화로 사람들의 삶이 파국해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이다.》, 이것이 물가상승과 민생고에 대한 민생의 토로이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속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가관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하

뒤뭇박치고 바람잡기

는 물가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물가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물가관리책임실명제》와 류사한것으로서 각계층의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이다.》, 이것이 물가상승과 민생고에 대한 민생의 토로이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속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가관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하

승, 환율상승의 위기를 심하게 겪고있으면서도 《침4동맹》과 《경제안보대책》이 과거 리명박외교집권시기 시뮬한 《MB물가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래내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비난이 러져나오고있는 것이다. 무지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한 괴뢰지역의 경제와 민생은 파국의 실연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본시기자 전명진